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

(사사기 12:1~15)

1.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2.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3. 나는 너희가 도와 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4.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5.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 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6. 그에게 이르기를 쉽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 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사만 이천 명이었더라
7.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육 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으매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

사람들이 명화로 인정하고 있는 잭 니콜슨 주연의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제목의 미국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 멜빈은 심각한 강박증 환자이면서 로맨스 소설의 작가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강박증으로 말미암아 성격이 뒤틀리고 꼬여서 주변사람들을 경멸하고 면박주고 상처 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괴팍한 성격 때문에 이웃들과 벽을 쌓고 사

는데, 그나마 이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한 여자가 있는데 멜빈이 다니는 단골식당의 여종업원 캐롤이었습니다. 멜빈은 늘 같은 자리에 앉고 일회용 식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식사를 하는데 이러한 멜빈을 참고 인내하고 유일하게 받아주었던 캐롤의 상황도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과 이혼했고 호흡기 질환을 가진 아들이 있고 어머니를 부양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멜빈이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캐롤에게 아들의 호흡기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의사를 소개해주면서, 둘의 관계가 사랑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스페인으로 여행을 가게 되는데, 이 여행 중에 나오는 대화가 이 영화를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캐롤이 '지금 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해봐요'라고 하자 강박증 환자인 멜빈이 '너만 생각하면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You make me want to be better man.)'라고 대답합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 두 사람의 로맨스가 아름답게 성립되고 강박증인 주인공이 변해가는 모습이 조명을 받습니다. 이 강박증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모습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의 제목이 됩니다. 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느냐'면 강박증으로부터 빠져 나왔기 때문이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은 '너만 생각하면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할 상대가 생겼기 때문인데 이것은 강박증이 아닐까요? 그 여자만 생각하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강박입니다. 이것이 그 동안 멜빈이 보여줬던 강박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전의 강박관념은 자기사랑에 갇힌 자기 방어적인 것이었는데, 지금의 강박관념은 타인 지향적 강박관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 지향적 강박관념이 결국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강박관념'이란 쉽게 말해서 집에서 외출을 할 때에 문단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불안해서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일정한 직업이 없는 아버지에게서 자라난 자녀가 갖는 직장에 대한 강박관념 등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디까지가 강박관념이고 어디부터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마음의 긴장이고, 내가 스스로에게 부여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너 때문에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 말이 강박관념이지만 사랑입니다.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는 말조차도 결국 강박관념으로 자꾸 그것을 생각하고 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선민의 유전자 상에는 강박관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세상 안에서 갖는 강박관념으로는 선민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선민은 이 땅에 살면서 강박관념으로 표현될만한 것은 하늘 지향적 강박관념만 있을 뿐입니다. 선민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마음이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머무는 자들입니다. 영화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선민의 신앙고백 중에 하나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말이 반드시 매순간 고백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행복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선민에게는 신앙고백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하

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사랑에 갇혀있는 강박관념으로부터 해방되고 또한 타인지향적인 강박관념에서조차도 극복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타인 지향적인 강박관념에서 벗어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사랑이 가능해집니다.
'너를 생각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은 타인 지향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므로, 그 사람을 내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나 중심적인 생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마음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기 전까지는 강박관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마음을 이 세상에서 죽은 자로 여기고, 주님의 동선을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그 증거가 '이 순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고 표현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마다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고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고백이 강박관념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고백이라면, 반대로 선민인데도 강박관념에 얽매여서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는 결과가 나타나버리고 마는데 오늘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을 물리친 길르앗 출신 입다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공연한 시비를 걸고 있는데, 낯익은 장면으로 기드온 때에도 에브라임 지파는 이러한 동일한 행동 패턴을 보였습니다. 앞서 본 8장에 기드온이 삼백 명을 이끌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자, 미디안이 서로 칼부림을 하다가 도망을 치게 되고, 그 도망치는 미디안을 잡기 위해 이스라엘 전국에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에브라임이 참여하게 되면서 도망가는 미디안의 두 장관을 죽이게 됩니다. 이후에 기드온을 찾아와서 '왜 연락도 하지 않고 네가 주동이 되어서 미디안과 싸웠느냐'고 묻는데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의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기드온이 대응한 것과 입다가 대응한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결국 입다는 에브라임에 맞서 전쟁을 일으켜서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게 되어서, 입다가 지휘하는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을 무려 사만 이천 명이나 도륙하게 되는데 이보다 더 나쁠 순 없지 않습니까? 대체 에브라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냥 입다가 암몬을 물리친 것에 대해서 '씁쓸하지만 잘 했다'고 여겼으면 넘어갔을 일인데, 왜 와서 시비를 걸고 사만 이천 명이 도륙을 당합니까? 길르앗이 군사력이 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에브라임이 큰 지파였고 길르앗은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도 한 지역이므로, 길르앗 사람들이 모여서 에브라임에 대항하는 것은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인데, 여호와께서 길르앗 사람 입다에게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의 권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는데 그 이후로 에브라임 자파에게는 높낮이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미디안이 싸울 때마도 자신들은 꼼짝도 못하고 있었으면서 기드온이 전쟁이 일으키고 전쟁의 승기를 잡자 찾아와서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느냐'고 합니다. 기드온과 입다는 똑같이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기드온은 이들이 높낮이 강박관념 때문에 왔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자신을 낮추고 도망친 두 장관을 죽인 에브라임을 치하하여 달래주어서 노여움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입다의 경우는 에브라임의 높낮이 강박관념의 행동에 순응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는데, 기드온과 입다의 차이점은 기드온은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에 대한 삶의 불편한 요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과의 관계 이외에 대해서는 평소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아닌 그 뜻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현실에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결과를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집안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암몬에 대한 승리를 허락하실 때에 자기 마음이 이 땅에서의 승리에 매일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은 번제를 행합니다. 그런데 동물을 하나 잡아 죽이는 정도로는 자신과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 될 수 있었고, 양이나 소 한 마리를 죽이는 정도로는 죄악 된 모습의 자기가 죽는 것으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집안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약한 사람으로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었습니다. 암몬에 대해서도 에브라임에 대해서도 입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행동하게 되는데, 기드온의 경우에는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4절에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향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흩어져서 빌붙어 살고 있는 인간들'이라고 속담처럼 하던 말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무서워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에브라임이 큰 지파였고 길르앗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래, 길르앗은 보잘 것 없고 작다'는 낮음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이 높음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기드온은 낮음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높고 낮음의 강박관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참 이상하신 분입니다. 그 사회의 지도자들 앞에서 낮음의 강박관념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회지도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십니다. 대제사장을 보고는 "창녀가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시며 창녀와 세리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십니

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 대해서는 용서하시고, 가장 거룩하게 율법을 지키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저주를 퍼부으시는데, 마음이 하늘에 가 계시기 때문에 도대체 이 분을 묶을 수 있는 세상의 밧줄이 없습니다. 주님이 사신 공생애 3년은 이보다 더 훌륭할 수는 없는 삶을 사셨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만을 좇아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을 십자가 생활화를 하여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음을 통해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지향적 마음을 통해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 땅에서 행동하게 될 때에 에브라임 지파 같은 자들에게 순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를 속박하고 불행하게 하는 그 어떤 강박관념도 다 부서집니다. 부장은 사장님 앞에서 먹고 살려면 일부러라도 공손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쩔쩔매야 합니다만, 내가 사장님께 공손히 대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한 비굴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주셨고 그 사장에게 공손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장이 되어서 부하직원들을 대할 때에도 선민은 행동의 형식은 다를지라도 그 알맹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독한 강박증에 시달린 영화 속의 멜빈이 강박증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삶의 상황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 생활화를 잊어버림으로 에브라임 지파처럼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라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강박관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이 강박관념은 마귀가 이 세상에 주는 율법입니다. 마귀의 율법이 강박관념입니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만 하고, 좋은 백을 들어야만 하고, 형제들보다 잘 살아야만 하고, 동기들보다 더 빨리 승진해야만 한다.'는 생각들이 다 마귀가 주는 율법입니다. 멜빈의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고백이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캐롤과 잘 되어서 결혼까지 했어도 줄곧 행복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결혼해본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내가 왜 결혼했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엄청나게 자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고백할 수 있고, 완전히 마귀의 율법이 박멸된 상태를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살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불행이 크든 작든 우리의 삶에서 그림자조차 없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순간순간 내 마음을 잡아끄는 세상의 모든 대상들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여,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고 몸이 있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입다가 행한 것 같은 행동들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마귀가 준 율법에 묶여 강박관념을 따라 사느라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는 생활을 했던 저희들이, 십자가를 잊지 않음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고백을 노래처럼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